

힌 작품을 고대의 '역사화'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2.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간략하긴 하지만 어느 하나 모호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문장이라는 찬사를 받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라면 아무리 열심히 속독하더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소 회화와 친숙한 지적인 사람이라면 이 책을 쉽게 이해하고 훌륭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예술에 대해 별다른 재능이 없거나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작가가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도 거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글은 미사여구 없이 간략하게 쓰였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게 읽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자들을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수식이 많은 유려한 문체보다는 정확한 서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전개될 내용은 독자들이 그다지 지루하게 여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3. 나는 삼각형, 피라미드 그리고 횡단면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문제들을 설명할 때 늘 기하학적인 도형을 사용하여 장황하게 설명

하곤 했습니다.¹⁶⁾ 그러나 여기서도 짧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한 화가가 또 다른 화가에게 회화예술의 중요한 기본수칙을 말하듯이 서술했습니다. 회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초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수칙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기본수칙들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재능과 회화의 정의를 이해할 뿐 아니라 나중에 설명하게 될 분야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애써서 배워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장차 훌륭한 화가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맞춰야 할 목표물이 없는데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면에 관한 모든 영역과 가장자리 윤곽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배운 사람만이 훌륭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여태껏 설명한 방법들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16) 『대중적인 작품 (Opere volgari)』, ed. Garyson, III, pp.108-29에서 그가 설명한 회화의 요소(Elementa picturae, Elementi di pittura)를 일컬으며, 이 책에는 기본적인 기하학의 정의와 축소된 '바닥면(pavement)' 위에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는 데 대한 지침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피라미드가 어떻게 그림구성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24. 그러므로 평면과 횡단면에 관한 설명들은 우리가 달성 하려는 목표를 위해 극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화가가 그의 마음으로 익힌 내용을 손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회화론



제2권

25. 어린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 보이므로, 나는 회화가 얼마나 주목받을 가치가 있고 또 배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화는 실제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우정에 대해서 말하듯이),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도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화를 감상하면서 기쁨과 동시에 화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플루타르코스^{Plutarch}에 의하면,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인 카산드로스^{Cassandrus}는 대왕의 초상화 앞에서 대왕의 위엄을 느낀 나머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¹⁷⁾ 라케다모니아^{Lacedaemonia}의 아게실라오스^{Agesilaus}는 자신의 외모가 추하다는 것을 알고 후대에 전

17) 플루타르코스의 『알렉산더의 생애(Alexander)』, LXXIV, 4.

해지는 것이 싫어서 누군가 자신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¹⁸⁾ 회화를 통해, 이미 죽은 사람이 영생을 누립니다. 회화는 또한 사람들이 경배하는 신들을 재현시켜 주는데, 이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앙심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의 마음을 건전한 종교적 믿음으로 채워준다는 점에 있어 인간에게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각가 피디아스^{Phidias}는 엘리스^{Elis} 지방의 주피터^{Jove} 신상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 신상이 너무나 아름답다워서 그곳 사람들의 신심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¹⁹⁾ 회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사물의 아름다움

18) 플루타르코스의 『아게실리오스의 생애(Agesilaus)』 II, 2.

19) 퀸틸리아누스의 『웅변교수론(De Institutio oratoria)』, 12, 10, 9. BC 457년 건설한 제우스 신전에 안치된 신상으로서,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피디아스가 8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당시 파르테논신전의 아테네여신상과 함께 피디아스의 2대 걸작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하나 오늘날에는 남아 있지 않다. 신전에는 도리아식 기둥이 양옆 모두 13개, 양끝에 6개씩 세워져 있었으며 가운데에 신상이 높이 90cm, 나비 6.6m 크기의 받침대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신상은 높이 약 12m의 목조로 되어 있었으며 보석·상아 등으로 꾸민 금으로 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어깨에는 황금 망토를 걸치고 오른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상을 받치고 있으며 왼손에는 금으로 장식한 왕홀을 쥐고 있었다. 두 다리는 금으로 된 디딤대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발은 신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놓여 있었다. 신전은 426년의 이교 신전 파괴령으로 파괴되었으며 6세기에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 땅속에 매몰되었다. 19세기 초에 들어와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신전의 메도프·기둥·지붕들 일부가 발견되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1950년 무렵에는 신전터에서 피디아스의 작업장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가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회화의 힘을 빌려 모든 것이 본래의 상태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아나 보석같이 귀중한 재료들은 화가의 손길이 닿으면 더욱 더 그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황금 또한 회화술에 의해 윤색되면 훨씬 큰 금덩어리와 같은 값어치를 갖게 됩니다. 금속 가운데 가장 낮은 취급을 받는 납덩어리조차 그것이 피디아스나 프락시텔레스²⁰⁾ 같은 명장의 손길이 스친다면 아무 가공을 하지 않은 은보다 그 가치가 더 높게 될 것입니다. 화가 제옥시스^{Zeuxis}는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주었다고 합니다. 작품이란 값을 매겨서 팔 수 없는 무엇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²¹⁾ 살아 있는 것들을 모방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흡사 신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에 합당한 가격을 매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26. 그러므로 회화예술의 장점은 대가들이 남긴 작품이 찬

20) BC 370-BC 330년 무렵에 활약한 아테네 사람으로 조각가 케피소도토스의 아들이다. 고전 전기(BC 5세기)가 '숭고양식'을 낳은 데 대하여, 그는 섬세하고 우미(優美)한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신상(神像)을 많이 제작하여, 고전 후기(BC 4세기)의 '우미양식'을 창조함으로써, 페이디아스가 죽은 후의 아피카파의 대표적 조각가가 되었다.

탄의 대상이 되며 그들 자신도 스스로를 창조주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회화가 한갓 모든 예술의 정부^{情婦}이고 중요한 장식품에 불과하다고요? 내가 틀리지 않다면, 건축가는 화가로부터 들보와 받침돌, 기둥머리, 박공벽 등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석공, 조각가 그리고 모든 수공업자, 공방들을 막론하고 화가의 기술과 규칙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아주 하찮은 분야를 제외하고 어느 분야에서도 회화와 어떤 연관을 갖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사물 속에 있는 아름다움은 그 무엇이든지 모두 회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회화야말로 최고의 영예를 누릴 만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예술가는 장인이라고 했지만, 화가만큼은 단순한 장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의 말을 빌려 나는 친구들에게 꽃으로 변신한 나르시스^{Narcissus}²²⁾야말로 회

21) 플리니우스의 『박물지』, XXXV, 62. 고대 그리스 화가로서 아테네의 아폴로도로스의 제자다. 스승의 작품을 계승 발전시켜 빛과 그림자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의하여 대표적인 음영(陰影)화가 되었다. 작품은 현존하지 않지만 고문헌에 의하면 「켄타우로스의 가족」과 남이탈리아의 크로톤 헬라신전을 위하여 그린 「헬레나 상(像)」 등의 걸작이 있었다고 전한다.

화의 창시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회화는 모든 예술의 꽃이므로 나르시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목적에 딱 들어맞습니다. 연못의 수면을 예술의 힘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회화가 아니겠습니까? 퀴틸리아누스는 초기의 화가들이 햇빛이 만드는 그림자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곤 했으며 여기에 뭔가를 더하는 과정에서 회화가 유래했다고 믿었습니다.²³⁾ 그러나 혹자들은 이집트 사람인 필로클레스 Philocles와 클레안테스 Cleanthes라는 사람이 회화를 처음으로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회화가 그리스에 전파되기 6000년 전부터 이미 자신들이 그림을 그려 왔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 저자들에 의하면, 시칠리아 Sicily 전투에서 마르셀루스 Marcellus가 승리를 거둔 후에 회화가 그리스에서

22) 신화에 등장하는 물속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다 죽은 소년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선화의 학명이기도 하다. 나르시스라는 목동은 매우 잘생겨서 그 미모 때문에 여러 요정들에게 구애를 받지만 나르시스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양떼를 몰고 거닐다 호숫가에 다다른 나르시스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거기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아름다운 얼굴이 있었다. 나르시스가 손을 집어넣으면 파문에 흔들리다가 잔잔해지면 또 다시 나타나곤 했다. 나르시스는 물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깊은 사랑에 빠져 결국 그 모습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런데 나르시스가 있던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고 그것이 바로 수선화(narcissus)다.

23) 퀴틸리아누스의 『웅변교수론(Institutio oratoria)』, 10, 2, 7.

이탈리아로 전래되었다고 합니다.²⁴⁾ 그러나 여기서 누가 과연 최초의 화가인지, 누가 회화의 발명자인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플리니우스처럼 회화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회화예술을 다루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깐요. 이스트무스 출신의 유프라노르Euphranor는 비례와 색채에 관한 책을 썼다고 하고, 안티고노스Antigonus와 크세노크라테스Xenocrates는 회화 작품에 관한 글을 남겼다고 하며, 아펠레는 페르세우스Perseus에게 보낸 편지에서 회화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회화론에 관해서 고대인들이 쓴 어떤 글도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Diogenes Laertius에 의하면 철학자 데메트리오스Demetrius 또한 회화에 관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²⁵⁾ 모든 다른 인문학이 우리 선조들에 의해 써진 것을 보면 이탈리아의 저자들이 회화도 경시하지 않

24) 플리니우스의 『박물지』, XXXV, 16, 15 와 22.

25) 유프라노르와 안티고노스 그리고 크세노크라테스와 아펠레는 플리니우스의 『박물지』, XXXV, 129, 68, 79 와 III를 참조할 것. 데메트리우스는 디오게네스의 『철학자 열전』, V, 83 을 참조할 것.